

미주신경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 환자군의 특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김 지 훈 · 최 흥 식

성대마비가 생기는 환자의 경우 미주신경 손상에 의하거나 되돌이 후두 신경에 국한된 손상에 의해 증상이 유발된다. 미주신경 손상에 의해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주로 두개저 수술 후 발생하거나 부인두강에 발생한 종양의 제거 시에 나타나게 된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성형술 및 피열연골 내전술을 받은 환자들 중 두개저 수술 후 발생한 성대마비 환자 12명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모든 환자에서 일측 성대마비와 함께 연하장애를 호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되돌이 후두 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

마비 환자들과는 다르게 연구개 주위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성대의 위축 현상과 더불어 이상와 주위로 분비물이 모여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미주신경이 손상된 경우 설인신경과 상후두신경의 손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상기 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장애를 호소하는 일측 성대마비 환자의 경우 두개저 수술 등의 과거력을 확인하고 연구개 근육의 움직임과 성대 주위 공간의 확인을 통해 미주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증상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